

측정방법의 비교를 통한 지역 고정관념의 분석¹⁾

한 규 석²⁾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달리한 여섯가지로 비교하고 각 방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정관념의 내용에 있어서 방법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몇몇 특성은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법간의 상관분석은 방법들 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각기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고, 고정관념의 측정시 각 방법이 지니는 의미의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몇가지 측정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그 우월성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은 개인이 지닌 고정관념의 강도는 표적집단에 대한 태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정관념이란 특정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말한다(Brigham, 1971).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다」, 「군인은 단순하다」, 「학생들은 과격하다」 등등의 신념 또는 지식으로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부정확하며,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상대방에 대한 하나의 대인관계 이론으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제공하며 그에 맞추어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일단 형성되면 견지되기 쉬운 뿐 아니라, 더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게 하는 자성예언적 측면(self fulfilling prophecy)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상대

방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이러한 인상이 번복될만한 객관적 자료(밀도깊은 접촉)가 결여되었을 때 편파적이고 확인적인 자료 처리 경향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대인교류상에 미치는 이같은 심각한 영향 뿐만 아니라 집단간 교류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Allport, 1954).

국내에서는 고정관념에 대한 관심이 지역감정의 문제와 결부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이래 지역감정의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졌고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여러건 이루어지면서, 여러 연구들(김진국, 1987; 김혜수, 1988; 박정순, 1989; 한규석, 1989)이 지역감정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은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의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영남인에 대한 호남인의 지역감정은 정치, 경제적 차별에 의한 피해의식이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밝혔다. 따라서 지역감정의 한가지 해소방안으로써 지역민간의 편견을 감소시켜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편견은 대체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일컫는데, 이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

¹⁾ 본 연구는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 학술연구구성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²⁾ 조사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고려대의 서영삼선생, 대구대의 이중한교수께 감사 드리며 자료분석의 통계처리를 도맡아 준 전남대의 마지현양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한다.

성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그 강도가 심각한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면, 거론되는 해소방안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민간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조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에 실증적 자료가 더해져 그 내용적인 측면들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밝혀져 왔다(김진국, 1987; 김혜숙, 1988; 이진숙, 1959). 이러한 연구들은 편견의 내용을 밝히는 데 치중했으며, 측정방법상의 문제는 대체로 도의시하였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같은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방법 중 어느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고정관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은 고정관념에 대한 나름의 독특한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우선 가장 오래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Katz와 Braly(1933)의 방법은 고정관념을 특정집단에 대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consensually) 가지고 있는 의견으로써 정의한다. 이 방법은 다수의 특성기술행용사를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서, 대상집단성원(예, 흑인, 유대인, 호남인 등)을 가장 잘 기술하고 있는 항목사를 4~5개 정도 선택케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항목사들을 대상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수십년 동안 고정관념과 편견의 연구에서는 이 방법이 채택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 방법은 대상집단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 고정관념(social stereotypes: Brigham, 1971)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정관념의 특성으로써 거론되고 있는 부정확성, 비논리성, 변화에 대한 저항 등 Lippman(1922, p.81)이 제시한 어떠한 준거도 측정해 내지 못하며, 아울러 고정관념에 대한 개인차를 전혀 보여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Brigham, 1971). 아울러 Katz 등의 방법은 대상집단의 전형적 인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집단 성원 중에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포성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써 세가지의 측정방법이 제기되었다.

Gardner(1973)는 보편적인 인식 뿐만 아니라 인식의 개인차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고정관념 미분척도(stereotype differential scales)를 개발하였다. 이는 여러 쌍의 양극 행동사로 구성된 7점 척도상에서, 표적집단의 특성을 평가하게 하여 이 평가가 중립치(이 경우는 4.0)로부터 의미있게 벗어나는지를 t 검증 $(X-4.0)/(S/n)$ 한다. 이 검증 값이 충분히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대상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기고, 그러한 특성들에 있어서 개인들의 평가를 총합함으로써 개인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과는 달리 Brigham(1971)은 합의성(consensus)의 정의가 매우 모호함을 지적하고, 고정관념은 대상집단 성원들의 몇 %가 해당 특성을 갖고 있는가의 인식에 의해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방법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특정 집단성원의 몇 %가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응답한다. 이 응답의 단순 평균을 갖고 대상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백분율 분석법이다. Brigham이 제시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백분율 응답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기준에서 볼 때, 부당할 정도로 나타난 것을 고정관념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성격에 대하여 그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시 되는데 자연집단의 경우, 그 구성원의 80%이상 또는 20%이하가 특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여길 수 있으며, 그러한 특성을 대상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은 그같은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는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McCauley와 Stitt(1978)은 진단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Brigham의 생각에 동조하여 백분율 파악방식을 채용하지만 고정관념의 채택에 있어서 연구자가 부여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판단자들에게서 구한 준거집단에 대한 판단치와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단을 방법에 따르기 위해서는 대상집단(표적집단: 예, 흑인, 호남인) 및 그 대상집단을 포함하는 보다 큰 전집(준거집단: 예, 인류, 한국인)의 성원 중에서 특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백분율을 물어야 한다. 이 두 응답의 비율을 구하여 그 비율이 1.0(분모=분자: 즉 표적집단과 준거집단의 백분율이 차이가 없음)에서 크게 벗어날 때, 고정관념으로써 규정하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고정관념의 강도

가 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방법은 그같은 진단율이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는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도 분석할 수 있다.

측정방법의 비교 연구에서 Gardner 등(1972)은 고정관념의 합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고정관념 미분법이 나 Katz 법이나 동일한 내용의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McCauley 등은(1978) 독일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밝히는데 있어서, Katz법을 쓴 Karlins 등(1969)의 결과를 그들의 진단율법이 Brigham법보다 더 잘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연구들은 각각의 측정법이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차이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측정법간의 구분없이 고정관념을 조사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Gardner, Brigham, McCauley 등이 제시한 세가지 방법은 특히 고정관념의 개인차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각 지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각기가 다른 개인차 특징(대상 집단에 대한 태도, 친밀도 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고정관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테면, Adorno 등(1950)의 연구에 의해서 고정관념은 강한 정서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정관념 미분법을 쓴 연구들(Gardner, 1973; Gardner et al., 1968)은 고정관념과 태도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McCauley 등은 진단율법이 합의적 신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끄집어 낼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Brigham(1971) 역시 부당한 일반화법이 합의적인 신념과는 다른 요소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주장들은 태도와 관련성이 깊은 고정관념 측정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 Gardner 등(1988)은 「불란서계 캐나다인」을 대상집단으로 해서 캐나다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시켜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방법간의 상관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22 < r < .63$) 각기 방법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Brigham의 방법은 응답자들이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고정관념 미분법은 고정관념의 합치성 인식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며, 진단율 분석 방법은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대상집단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인

면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지역민간의 고정관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측정방법 간의 비교를 통해서 첫째로, 지역간 고정관념이 집단 수준에서 측정방법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유사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들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각 방법이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여러가지 측정법에 따라 고정관념의 개인차 지표를 구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각 지표가 갖는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ardner, Brigham, McCauley 등이 제시한 측정방법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적인 방법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전라인에 대한 편견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함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초점을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맞추었다.

방 법

응답자

응답자는 서울, 대구, 광주에 소재한 종합대학교 학생들로 각 지역에서 221, 171, 177명의 학생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답이 부실한 것(19)과 서울 응답자 중 호남출신 학생들(55)을 제외한 총 495명의 자료가 분석의 대상이었다. 분석자료의 남녀비율과 연령의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도시와 성별 응답자수

	광주	대구	서울	
	<19.8>	<21.1>	<20.9>	
남	63	73	99	235
<21.5>				(47.5%)
여	110	92	58	260
<19.9>				(52.5%)
	173	165	157	495
	(34.9%)	(33.3%)	(31.7%)	<20.6>

< >안은 평균 연령임.

절차

조사는 1991학년도 11월에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 강의 시간에 이루어 졌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주의 사항을 알린 다음, 절차가 충분히 이해되어 졌을 때 학생들 스스로가 설문지를 넘겨가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완성에 소요된 시간은 30-45분 정도이었다.

도구

조사에 이용된 설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정관념측정

전라인과 경상인들에 관한 고정관념의 조사연구(김진국, 1987; 김혜숙, 1989; 민경환, 1989; 이진환, 1989)들에서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들로 나타났거나, 그 측정을 위해서 쓰여진 특성 형용사 중에서 「생활력이 강함, 반항적임, 단결력이 강함, 고집이 션, 약삭빠름, 배타적임, 근면성실함, 영리함, 믿을 수 없음, 인정 많음」의 10개를 뽑고, 이에 더해 「의리가 있음, 진취적임, 우유부단함」의 세가지를 추가해서 모두 13개의 특성차원을 뽑았다. 이들 차원에서 대상지역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방법에 준하여 백분율 평가법을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13개의 특성을 대상지역민의 몇할 정도가 갖고 있다고 보는지를 9점 척 상에서 판단케 하였다. 진단을 분석법을 위해서는, 준거집단으로써 한국인 전체집단을 제시하여 한국인의 몇할 정도가 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지를 판단케 하였다. 고정관념 미분법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는, 각 특성형용사의 반대 형용사를 연구자가 만들어 13개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서, 평가대상 지역민이 어느 쪽 형용사에 더욱 가까운지를 7점 척 상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모든 응답자들은 형용사 짝의 척도를 이용하여 전라인 및 경상인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단일 형용사 척도를 이용하여 전라인과 한국인 일반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모든 응답자들은 전라인에 대한 백분율 및 미분 방식, 경상인에 대한 미분 방식, 한국인에 대한 백분율의 순서³⁾로 평가를 하였다.

³⁾ 이러한 연구 절차는 순서 효과를 무시한 것이다. 즉 모든 응답자들이 미분법에 따른 추정치는 전라인, 경상인의 순서로 평가를 하므로 해서 있을지도 모르는 순서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그러

전라인에 대한 적대감 측정

전라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적대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혜숙(1990)이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서 6 문항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응답은 「그렇다/상대에 따라서/아니다」중에서 택일케 하였다. 이 여섯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상대에 따라서」라는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에 응답하는 것은 막연한 거리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각 문항에 「아니다」라고 한 응답이 몇개인지 세서 적대감의 지표로 삼았다(Struch & Schwartz, 1989).

전라인에 대한 접촉도

전라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접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4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전라도 친구의 과다, 접촉기회, 전라인을 싫어하는 친지의 과다, 전라도의 최근 여행경험을 묻는 것들로써 응답은 “없다, 조금, 많다” 중 택일하게 하였다. 응답치간의 일관성을 고려한 조정을 한후, 단순합산으로 접촉도의 지표를 삼았다. 이 네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성향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경환(1989)이 제시한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에서 나타난 9개의 하위영역을 골고루 대표 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문항-전체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들을 1~2개 씩 선별하여 총 12문항을 5점척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63으로 나타났으나 문항-전체 점수간의 개별상관이 .20이하로 나타난 문항 넷을 제외하여, 최종 여덟개의 문항만을 갖고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들 여덟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58로 나타났다.

자신을 잘보이려는 정도(Social Desirability)

응답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솔직하게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MPI의 허위척도에서 10개의 문

나 연구의 목적이 고정관념 내용간의 비교이며 이러한 비교가 응답자 지역간(between) 및 방법간(within)에 있어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순서효과를 무시했다. 추정 순서의 균형(counter-balancing)을 맞추지 않은 것이 미분법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는 않으나, 진단물에 의한 고정관념의 측정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순서 효과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항을 선별 하여 이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48로 나타났으나 문항-전체 점수간의 개별상관이 .20이하로 나타난 문항 넷을 제외하여, 최종 6개의 문항만을 갖고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들 여섯문항의 일관성 신뢰도는 .44로 나타났다.

결 과

분석방법

본 조사는 주 목적이 호남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분석이다. 통상, 자기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내용이 타집단 성원이 갖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므로, 자집단과 타집단 성원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도 대구와 서울 응답자

(주 성장지가 호남인 응답자들은 제외)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 광주 응답자의 반응치를 포함 분석하였다.

1.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측정방법간의 차이 - 집단수준.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고정관념의 측정방법에 따라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표 2>에는 13가지 특성 행동사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가 측정 방법의 비교이니 만큼 각 표에 제시된 자료가 어떻게 구해진 것인지를 설명하며 결과를 제시하겠다.

<표 2> 집단 고정관념의 양상(서울, 대구 응답자 322명의 응답임)

항 목	미 분 법	백분율	부 당 한 일 반 화			진단율	LDR	한국인*
			I\$	II\$\$				
사귀기 쉬움-배타적임@	M	4.00	4.75	24.2	6.8	1.26	.04	4.40
	SD	1.49	2.14	15.5/		.95	.61	1.73
	SK	-.01	-.03	8.7		3.60	-.06	-.04
	t#	-.04				4.91	1.21	4.15
결단력 강함-유유부단함	M	2.79	3.07	42.9	39.7	.76	-.49	4.66
	SD	1.39	1.65	41.3/		.59	.66	1.65
	SK	.63	.84	1.6		3.28	-.03	-.18
	t	-15.56				-7.38	-13.45	7.18
영리함-미련함	M	2.94	5.36	16.8	4.4	1.31	.12	4.87
	SD	1.16	1.76	6.2/		.84	.54	1.87
	SK	.21	-.33	20.6		2.71	.00	-.09
	t	-16.49				6.56	3.96	8.34
믿을 수 없음-믿을 수 있음	M	3.79	4.16	36.4	19.6	1.19	-.08	4.31
	SD	1.50	2.21	28.0/		1.02	.72	1.96
	SK	-.19	.25	8.4		3.39	-.20	.13
	t	-2.56				3.29	-2.08	2.81
생활력 강함-생활력 약함	M	2.35	6.80	43.2	39.4	1.27	.15	5.85
	SD	1.34	1.67	1.9/		.67	.40	1.55
	SK	1.24	-.95	41.3		4.40	.28	-.46
	t	-22.07				7.24	6.88	21.45

의리 있음-의리 없음	M	3.38	5.06	25.5	1.3	1.22	.03	4.76
	SD	1.54	2.03	13.4/		.80	.59	1.62
	SK	.46	-.03	12.1		2.78	-.20	.06
	t	-7.24				4.95	.85	8.38
인정 많음-인정 없음	M	3.47	5.00	24.2	.6	1.10	-.07	5.19
	SD	1.43	2.00	12.4/		.71	.58	1.74
	SK	.22	.04	11.8		3.14	-.28	.01
	t	-6.65				2.49	-2.12	12.20
단결력 강함-단결력 약함	M	2.24	6.81	47.2	41.0	1.83	.48	4.30
	SD	1.36	1.88	3.1/		1.06	.50	1.50
	SK	1.07	-.96	44.1		2.45	.09	.26
	t	-23.35				14.02	17.01	3.56
반항적임-순종적임	M	2.87	5.56	27.6	9.0	1.61	.33	4.02
	SD	1.17	2.05	9.3/		.99	.54	1.67
	SK	.53	-.43	18.3		2.67	-.21	.29
	t	-17.35				11.03	10.82	.20
진취적임-보수적임	M	3.50	5.42	17.7	8.3	1.44	.23	4.37
	SD	1.42	1.80	4.7/		.87	.51	1.69
	SK	.48	-.17	13.0		2.94	.01	.10
	t	-6.34				9.15	8.12	3.93
약삭빠름-우직함	M	3.18	5.47	32.9	9.3	1.40	.13	4.78
	SD	1.52	2.22	11.8/		1.11	.63	2.00
	SK	.42	-.29	21.1		3.44	.05	.02
	t	-9.64				6.46	3.64	7.00
근면성실함-게으름	M	3.09	3.22	35.1	34.5	1.00	-.20	3.89
	SD	1.17	1.56	34.8/		.73	.63	1.75
	SK	.27	.42	.3		3.33	-.08	.22
	t	-14.03				-.05	-5.72	-1.15
고집이 셈-유순함	M	2.53	6.13	31.1	19.9	1.35	.19	5.04
	SD	1.24	1.91	5.6/		.77	.48	1.65
	SK	.94	-.70	25.5		3.97	-.44	-.10
	t	-21.20				8.32	7.03	11.33

* 한국인에 대한 백분율 추정치임.

@ 특성 쌍 중에서 고딕체로 쓰인 것이 백분율 등의 추정시에 제시된 것임.

평가대상 집단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이 중앙치(4.0) 또는 기준비율(진단율에서 1.0, 대수진단율에서 0.0)에서 벗어난 정도가 유의미한지를 t검증하여 구해진 t 값임.

\$\$ 부당한 일반화 I 항의 숫자는 양 극단에 응답을 한 사람의 합산비율이고 작은 글씨의 숫자는 2할 이하 응답자의 비율/8할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 부당한 일반화 II의 숫자는 부당한 일반화 I의 양변주 응답자 비율간의 차이를 뜻함.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SK : Skewness

고정관념 미분 방법

Gardner(1973)는 고정관념을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의 합치성으로 규정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가가 중간점(4.0)으로 부터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 이를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방식에 따르면, 12개의 항목에서 응답자들의 평가 평균이 중립치인 4.0으로 부터 의미있게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영리함-미련함」의 쌍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2.94이며 표준편차는 1.16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크기가 322이므로 t 값은 -16.49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호남인들은 영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속성은 즉, 호남인들에 대하여 서울과 대구의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 볼 수 있는데, t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호남인들이 그러한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 13개의 속성쌍 중에서 t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난 순서대로 뽑아 해석하면, 호남인들은 「단결력 강하며, 생활력이 강하며, 고집이 세며, 반항적이며, 영리하며, 결단력이 강하고, 근면성실하고, 약삭빠르며, 의리 있으며, 인정이 많으며, 진취적이며, 믿을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백분율 평가 방법

이 방법은 특성의 짝을 제시하는 대신에, 매 특성별로 그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호남인 중에 몇 %나 되는 지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본 조사에서는 <표 2>의 특성 짝 중에서 고딕체로 쓰인 특성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1할 정도에서 9할 정도의 9점척 상에 13개의 특성에 대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자들의 반응을 단순 평균하는 것으로, 이 방법에 따라 전라인의 특성을 나열하면, 전라인들 중에는 「단결력 강한, 생활력 강한, 고집이 세, 반항적인, 약삭빠른, 진취적인, 영리한, 의리있는, 인정 많은」 사람이 많은 편(50% 이상)이며, 「우유부단한, 게으른」 사람이 적은 편(32% 이하)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한 일반화법-I

Brigham(1971)은 위의 단순 평균법이 고정관념의 내용은 알려 주지만 그 부당성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음을 고려하여, 대상집단의 성원중 너무 많거나(8할 이상), 너무 적은(2할 이하) 사람들이 특정 속성의 소유자로 여기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는 일반화로 규정

하고, 이러한 속성을 대상집단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호남인들중에서 생활력 강한 사람은 2할 이하라고 본 사람이 6명(1.9%)이고 133명(41.3%)은 8할이 넘는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43.8%(139명)가 호남인 중에는 생활력 강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여감을 알 수 있다. <표 2>에는 대구 서울 응답자 중에서 호남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파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각 특성별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라인을 특성화 한다면, 「단결력 강한, 생활력 강한, 우유부단함(-), 믿을 수 없음(-), 게으름(-), 약삭빠름, 고집이 세, 반항적임, 의리있음(-)」의 측면에서, 대구 서울 응답자들의 25% 이상이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한 일반화법-II

부당한 일반화법-I은 양극단(2할 이하, 8할 이상)에 응답한 사람들을 단순 합산하는데, 이는 고정관념의 척도로 보기 곤란한 점이 있다. 이를테면, 전라인에 대해서 의리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 사람이 51명이고, 지나치게 적다고 보는 사람이 49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라인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파악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전라인에 대하여 의리라는 측면에서는 뚜렷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방법은 고정관념의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해석이 곤란하다. 이같은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부당한 일반화법 II에서는 2할 이하의 응답자 수와 8할 이상의 범주에 응답한 사람의 수의 차이를 구하여, 그 절대값을 취하였다. 이같이 하면, 전라인에 대하여 「단결력 강한, 우유부단함(-), 생활력 강한, 게으름(-), 고집이 세, 믿을 수 없음(-)」의 측면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율 법

McCauley와 Stitt(1978)은 대상집단의 사람들이 일반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게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고정관념으로 보았다. 즉 한국사람 일반에 대한 판단과 호남인에 대한 판단의 비율을 구하여, 이 비율의 대비가 1.0과 다른 정도를 고정관념의 한 지표(평균진단율)로 볼 수 있다. 원래 McCauley 등(1978)은, 표적집단에 대한 평가 평균을 준거집단에 대한 평가 평

군으로 나누어 진단율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개인차를 보여 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진단율이 1.0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관념의 측정법으로써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단비율을 개인별로 구하여 이를 평균하면 개인차 및 진단율의 통계적 판단이 가능하다(김진국, 1984; Gardner 등, 1988). 이를테면, 「배타적임」에 대한 진단율의 개인별 평균은 1.26이며 표준편차는 .95이므로, 이 평균이 1.0과 차이 나는 정도를 t 검증을 해서 구한 것이 4.91이다. 이 방법으로 측정시 전라인을 인식하는 특성으로 「단결력 강함, 반항적임, 진취적임, 고집 씬, 우유부단함(-), 생활력 강함, 영리함, 약삭빠름, 의리있음, 배타적임, 믿을 수 없음」을 들 수 있다.

대수 진단율 법

김진국(1984)은 진단율을 이용한 고정관념 측정에서 그가 제시한 9개의 특성 중 오의적 특성에서도 자기집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며, 진단율의 편포도가 극심한 정적 편포를 이룸을 보고 진단율법이 고정관념의 측정법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김진국은 진단율에 자연대수를 취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같이 대수 진단율을 써서 대구 서울 응답자들의 반응이 영점과 차이 나는 정도를 t검증하여 분석하면 「단결력 강함, 우유부단함(-), 반항적임, 진취적임, 고집 씬, 생활력 강함, 게으름(-), 영리함, 약삭빠름, 인정 많음(-), 믿을 수 없음(-)」의 특성에서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고정관념을 파악했을때 드러나는 고정관념의 내용은 방법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겠다(표 3). 여섯가지 방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결력 강함, 생활력 강함, 우유부단함(-), 고집 씬」 등이며, 「게으름(-), 반항적임, 약삭빠름」이 다섯가지에서, 「영리함, 진취적임」이 네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특성상에서는 호남인들에 대하여 서울 대구 응답자들의 합의성(consensus)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본 조사에서 특이하게 나온 것은 기존의 연구 등에서 「믿을 수 없음」이 강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거나(미분법) 반대로(대수진단율, 부당한 일반화 I, II) 나타난 점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미분법 적용시 대구 서

<표 3> 측정법에 따른 고정관념 내용의 차이

미분법	백분율법	부 당 한 일 반 화		진단율	대수진단율
		I	II		
단결력 강함	단결력 강함	단결력 강함	단결력 강함	단결력 강함	단결력 강함
생활력 강함	생활력 강함	생활력 강함	우유부단함(-)	반항적임	우유부단함(-)
고집 씬	고집 씬	우유부단함(-)	생활력 강함	진취적임	반항적임
반항적임	반항적임	믿을 수 없음(-)	게으름(-)	고집 씬	진취적임
영리함	약삭빠름	게으름(-)	고집 씬	우유부단함(-)	고집 씬
우유부단함(-)*	진취적임	약삭빠름	믿을 수 없음(-)	생활력 강함	생활력 강함
게으름(-)*	영리함	고집 씬		영리함	게으름(-)
약삭빠름	의리있음	반항적임		약삭빠름	영리함
의리있음	인정 많음	의리있음(-)		의리있음	약삭빠름
인정 많음	우유부단함(-)			배타적임	인정 많음(-)
진취적	게으름(-)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없음					

* 미분법에서는 「우유부단함-결단력 강함」 「게으름-근면성실함」의 짝으로 제시되었으며 평가결과 호남인을 결단력 강함, 근면성실하다고 보는 경향이었으나, 본 표에서는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결단력 강함을 우유부단함(-)으로 근면성실 함은 게으름(-)으로 표기함.

을 응답자의 평균은 전라인을 믿을 수 없는 편으로 여감을 알 수 있다.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35.2%가 믿을 수 없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29.5%는 믿을 수 있는 편이라고 응답해서 차이는 크지 않다. 한편 백분율 방식에서는 51.8%가 믿을 수 없는 이가 5할 미만이라고 했고 25.6%가 믿을 수 없는 이가 6할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8할 이상이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한 사람은 8.4%에 불과하고 오히려 28%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2할 이하라는 응답을 보여 부당한 일반화로 파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백분율 파악시 한국인에 대한 평가 평균은 4.31이고 전라인에 대한 것은 4.16으로 나타나 McCauley가 제시한 방식대로 집단 평균을 갖고 평균 진단율을 구한다면 $4.16/4.31 = .965$ 가 나와서 1.0에 못 미친다(두 비율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는 $t = -1.06$ 으로 나타남. $p > .10$). 그러나 이 진단율법은 개인차를 밝힐 수 없으므로 개인별로 진단율을 구해서 (Gardner 등, 1988) 평균한 것이 <표 2>에 나온 1.19이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하면 전라인에는 한국인 준거 집단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개인진단율이 갖고 있는 분포의 극심한 편포성으로 인해 자연대수를 취할 경우는 「한국인 보다 전라인에게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적다」를 주게 된다. 이는 평균 진단율이 제시하는 해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비슷한 양상의 변화가 「의리있음, 인정 많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고정관념의 측정시 각 방법의 특성을 알고 연구 목적에 걸맞는 측정법을 선택해야 함을 뜻한다.

2. 측정방법간의 관계분석

<표 2>에서 제시된 여러 측정방법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의 우상부에는, 13 특성 형용사의 응답 평균치를 갖고 각 방법간의 짝을 지어 구한, 순위 상관 계수⁴⁾가 나타나 있다.

이들을 보면 미분법은 백분율법 및 부당한 일반화법과 상관이 있으나, 진단율법 두가지와는 상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백분율법은 진단율법과 매우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대수진단율과도 상관이 있으나, 부당한 일반화법 I, II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일반화법 두가지는 서로간에 깊은 상관이 있으며, 미분법과 관계가 있을 뿐 다른 방법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법은 흔히 전형적인 전라인에 대한 지각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전라인이 특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백분율)라는 지각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아울러 평가자들 중에서 전라인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과도 높은 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단율법과는 상관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준거집단과 비교되는 의미는 갖고 있지 않거나 적게 갖고 있다고 보겠다.

⁴⁾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상관계수의 크기이다. 방향은 문제가 안되는데, 백분율 등의 방법에서 제시된 형용사가 미분법에서 좌단 혹은 우단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방향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4> 호남인에 대한 집단 고정관념의 측정법간 상관

	(1)	(2)	(3)	(4)	(5)	(6)
미 분 법	(1)	-.577*	-.573*	-.670*	.302	-.309
백 분 율	(2)	.475***	.158	.198	.852***	.592*
부당한일반화 I	(3)	.172**	.327***	.905***	-.071	-.195
부당한일반화II	(4)	.320**	.678***	.823***	.176	-.268
평균 진단율	(5)	.229**	.434***	.130**	.300***	.496
대수 진단율	(6)	.316***	.607***	.227***	.433***	.877***

우상부의 상관계수는 순위상관계수이며, 자유도는 11(13-2)이다.

좌하부의 상관계수는 적률상관계수들의 평균이며, 자유도는 320(322-2)이다.

자유도가 다르므로, 좌하부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와도 유의도 값이 높은 것이다.

한편, 백분율법은 부당한 일반화법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상대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자 집단의 평균적 평가가 상대집단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의 비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표 4〉의 좌하부에 나타난 상관계수는 동일 형용사에 대한 각 측정방법 간의 적률상관을 구하여 13개의 특성들에 대해서 평균한 것이다. 부당한 일반화 I, II의 경우는 각 특성에 대해 부당한 일반화를 했으면 1, 안 했으면 0의 값을 주어서 다른 방법들과의 상관을 구한 다음, 이들을 평균하였다. 이들 상관계수를 보면 미분법은 어떠한 방법보다도 백분율 방법과 상관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백분율법은 다른 방법보다는 부당한 일반화 II 및 대수진단율과 높은 상관을, 진단율은 미분법보다는 백분율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대수진단율은 진단율 및 백분율법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상부의 순위상관계수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부당한 일반화 II가 다른 방법과 갖는 상관이 부당한 일반화 I보다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II가 I보다 바람직한 측정법임을 시사하는 점이다.

3.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개인차 분석 방법

측정방법에 따라 대상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개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각 방법에 따른

개인의 고정관념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본 조사의 고정관념 미분법 방식에 따라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타난 10개의 형용사 쌍(결단력 강한, 영리한, 믿을수 없는, 생활력 강한, 의리 있는, 단결력 강한, 반항적, 약삭빠른, 근면성실한, 고집 센의 차원)을 선정하여 각 방법별 평가를 합산하여 미분법과 백분율 점수를 삼았다. 이때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전라인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이 강함을 뜻하게끔 점수의 변환을 하였다. 부당한 일반화 I은 13개의 문항중 호남인에 대하여 극단적인(2할 이하 또는 8할 이상) 평가를 한 문항의 수를 세어서 개인의 점수로 취한 것이다. 부당한 일반화 II는 전라인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의 방향으로 극단적인 평가를 한 회수를 세어서 개인의 점수로 취한 것이다. 진단율 점수는 개인별로 구한 항목별 개인 진단율을 앞의 10개 항목에 걸쳐 합산한 것이다. 단, 이때 문항별 진단율이 1.0이하로 나타났을 때는 그의 역수를 취하여 합산하였다. 이는 고정관념의 강도를 구하기 위함이다(Gardner 등, 1988). 대수진단율 점수는 개인별로 10개 항목의 대수 진단율의 절대값을 합산한 것이다.

결과

개인차 점수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Spearman-Brown의 공식을 적용하여 구한 결과, 미분법=.72, 백분율법=.73, 부당한 일반화 I=.78, 부당한 일반화=.62, 진단율 점수=.52, 대수 진단율=.59로 나타났다. 이들 개인점수들간의 지역별 평균치가 〈표 5〉에

〈표 5〉 전라인에 대한 개인 고정관념의 지역별 비교

	미분법	백분율법	부당한 일반화		진단율법	대수 진단율
			I	II		
서울 남	5.08	5.97	3.81	3.06	1.65	.46
여	5.22	6.10	5.53	4.09	1.74	.51
대구 남	5.01	5.81	3.47	2.89	1.66	.45
여	5.06	5.79	3.83	3.01	1.67	.46
광주 남	4.96	5.64	4.02	2.60	1.51	.37
여	4.98	5.62	3.05	1.99	1.46	.34
F지역 (2.489)	3.15*	7.81**	6.32**	13.41***	13.62***	21.23***

점수가 높을 수록 고정관념이 강하거나, 부당한 일반화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함.

<표 6> 전라인에 대한 개인 고정관념의 요인 점수별 지역 비교

	미분법		백분율		진단율		대수진단율	
	강인성	불신성	강인성	불신성	강인성	불신성	강인성	불신성
서울	5.53 ^a	4.52 ^{ab}	6.27 ^a	4.97 ^a	1.47 ^a	1.19 ^b	.42 ^b	.47 ^b
대구	5.31 ^b	4.58 ^b	6.00 ^{ab}	4.83 ^a	1.48 ^a	1.35 ^a	.42 ^b	.49 ^b
광주	5.36 ^{ab}	4.33 ^a	5.90 ^b	4.64 ^a	1.35 ^a	1.17 ^b	.30 ^a	.40 ^a
F (2,492)	3.430 [*]	4.94 ^{**}	3.58 [*]	2.81	3.50 [*]	5.32 ^{**}	18.67 ^{***}	4.14 [*]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하게 또는 불신스럽게 여김을 뜻함.

**각 행에서 같은 철자를 공유하지 않은 두 평균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Turkey 사후 검증, P<.05).

제시되었다.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서울, 대구 응답자들이 광주 응답자에 비해서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차 점수 평균에 대한 성과 지역의 이요인 변량 분석을 한 결과, 지역 차이는 대수 진단율에서 가장 크게, 진단율, 부당한 일반화 방법 II, I, 백분율법, 그리고 미분법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의 측정방법에 따라 지역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흥미있는 성과 지역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당한 일반화 I (F=8.20, p<.001)과 II (F=5.35, p<.01)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부당한 일반화를 더욱 많이 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개인차의 의미를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 10개의 특질에 대하여 백분율법과 미분법에 나타난 응답치를 갖고 주인자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적용시켰다. 그 결과 5개의 인자가 고유가 1.0이 넘게 나왔으나 첫 두 인자가 총변량의 35.2%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측정법이 다르더라도 10가지 같은 특성은 끼리끼리 같은 인자속으로 묶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부록 2), 이 같은 기대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첫번째 요인은 "결단력 강한, 생활력 강한, 단결력 강한, 반항적, 고집 센"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강인성」요인으로 칭할 수 있다. 두번째 요인은 "믿을 수 없는, 약삭빠른, 의리없는"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신성」요인이라 칭할 수 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응답치를 단순합산하여 측정법 별로 구하고 지역별 비교를 위한 일요인 변량분석 결과(표 6) 「강인성」요인에 대해서는 서울 응답자가

대구 응답자보다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미분법에서 두드러지고 백분율법에서는 약하게 나타나나 진단율법에서는 안나타남). 「불신성」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구 응답자가 서울 응답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진단율법에서 두드러지고, 미분법에서는 약하게 나타나나 백분율에서는 안나타남). 이 분석에서 서울 응답자들은 호남인을 강인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대구 응답자들은 호남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정관념의 강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분석

본 조사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 성향, 전라인에 대한 적대감, 전라인과의 친숙도, 자신을 잘 보이라는 성향을 측정하였다. 이들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지닌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하고, 이 상관계수 행렬(부록 2)을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다. 단 이 요인분석에서는 진단율과 부당한 일반화 I의 두변수는 다른 방법과 부합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결과 세계의 요인 구조가 드러났으며, 이들은 총변량의 5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해석을 위해서 varimax회전을 적용시켜 나온 요인 부하계수 행렬이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그결과를 보면, 요인 I은 미분법, 백분율법 그리고 부당한 일반화 II에 의한 개인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호남인

<표 7> 개인의 각종 성향과 고정관념 점수의 요인분석 (전체)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고정관념개인점수			
백분율법	.83	.06	-.09
미분법	.82	.10	.05
부당한 일반화	.58	.57	.05
대수진단율	.09	.88	.05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성향	-.14	-.20	-.36
권위주의성향	.27	-.14	-.62
대 전라적대감	.05	-.12	.72
전라인과 접촉도	-.03	-.51	.61
고 유 가	2.23	1.40	1.03

에 대한 고정관념의 합의성 (consensus)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요인 II는 대수 진단율법, 부당한 일반화법 II의 고정관념점수와 호남인에 대한 접촉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호남인에 대한 접촉과 호남인을 유별나다거나, 과도히 일반화시켜 파악하는 경향이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요인 III은 전라인에 대한 적대감, 접촉도, 권위주의의 성향, 및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성향으로 구성되어 전라인에 대한 감정적 (affective)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겠다. 고정관념의 개인측정법 어느것도 이 요인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할만한데, 이는 고정관념의 강도가 태도와는 무관하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방법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각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특성들을 위주로 측정방법을 변화시켰다. 대구와 서울의 응답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측정법들을 비교한 결과 방법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집단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방법간의

유사성이 많이 나타났다. 이같은 유사성은 본 조사에서 사용된 특성들이 호남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이미 나타난 것들을 위주로 하였다 점, 그리고 이들 지역민에게 그러한 특성에 있어서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한 정도의 합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Gardner 등은 합의성이 높을수록 방법간의 차이가 적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측정법을 달리하는 경우 파악되는 고정관념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측정법이 갖는 특성과 상호간의 관계의 파악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측정법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미분법이 여러 측정법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고루 보이고 있으나 진단율과의 상관은 낮기 때문에 표적집단이 준거집단과 비교되는 의미는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Brigham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즉 백분율법과 부당한 일반화법과는 상관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표적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가 표적집단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의 비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부당한 일반화법이 합의적 신념과는 다른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Brigham(1971)의 주장을 떠올린다. 이같은 비관계성의 원인을 분석하면 우선, 부당한 일반화법-I의 경우 2할 이하나 8할 이상의 양극단의 평가자들이 응답치가 서로 상쇄되어, 백분율의 평균평가가 중앙값(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백분율 방법상으로는 고정관념의 강도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반화법-I 상에서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서, 응답자들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응답자들이 모두 고학력자들이며, 지역감정을 타파코자하는 이들이므로 극단적인 평가를 매우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이 강하더라도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한편, 이들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들에 있어서 부당한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 79명(13개 중 5개 이상의 특성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함)과 그 같은 경향이 적은 사람들 80명(13개 중 1개 이하)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들의 권위주의의 성향,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는 성향, 전라인에 대한 적개심, 전라인과 접촉정도, 친숙도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

변수들에서는 두 집단간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p > .20$). 그러나 다른 개인차 고정관념 지수상에서는 극단적인 평가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인에 대한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부당한 일반화를 하지 않는 경향이 약하지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r = -.186$ 부록 2). 이같은 결과는 과연 부당한 일반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추후 연구과제를 던져 준다.

백분율법이 진단율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두 방법이 모두 백분율 방식을 바탕으로 한 점에 있을 것이다. 김진국(1984)도 고정관념의 측정법을 달리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백분율법과 진단율법이 역시 높은 상관을 가짐을 보았다.

각각의 방법이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을 내기는 어려우나 그 같은 비교를 두개의 진단율 분석법과 두 개의 부당한 일반화법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다.

진단율 방법은 애초에 McCauley와 Stitt이 제기한 것으로 대상 집단에 대한 평가자 집단의 평균을 준거 집단에 대한 평가의 평균으로 나누어 비(평균 진단율)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개인별 고정관념의 강도를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양적이고 개인적인 측정법으로써는 부적합하다. 그 대안으로 김진국(1984)과 Gardner 등(1988)이 제시한 것은 그 같은 비율을 개인별로 구해서 평가자 집단의 진단율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고 평균치가 준거점(1.0)으로 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김진국(1984)이 보여 주듯이 진단율이 갖는 극심한 정적 편포성향으로 진단율의 평균치가 크게 왜곡되어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표 2>에서 전라인 중에 게으른 사람의 비율은 32.2%로 나타나고, 한국인 중에는 38.9%로 나타나 평균 진단율은 $32.2/38.9 = .83$ 으로 나온다. 이 두 비율을 t검증 해보면, 대구 서울 응답자들은 한국인 일반보다 전라인들에게서 게으른 사람의 비율이 더 적다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t_{321} = -6.05, p < .001$). 그러나 개인 진단율에 의한 파악은 1.0으로 두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진단율이 극심한 정적 편포를 이루므로 분포의 평균이 극단치 몇

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수를 취할 경우 극단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되며 분포도 정상적 모양을 갖추게 된다. 위의 경우를 대수 진단율로 파악하면, -.20으로 나타나 평균 진단율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문제때문에 진단율을 쓰는 경우에는 惡意의 특성마저 내집단의 속성으로 파악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진국(1984)이 전남대학생 소수를 대상으로 9개의 특성을 제시하고 진단율에 의한 자상동형(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악했을 때 "일반적으로 오의적 특성은 내귀속적이라기 보다는 외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오의적 특성 모두가 내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광주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진단율 값을 구한 결과(부록 3), 13개의 특성 중 1.0미만으로 나온것은 2개뿐이며(배타적, 우유부단함), 다른 오의적 특성(믿을 수 없음, 약삭빠름, 게으름 등)에서도 진단율은 1.0이상으로 나오고, 13개중 12개의 평가치의 편포도가 1.0이 넘는 심한 정적편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율에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 「배타적임, 우유부단함, 믿을 수 없음, 약삭빠름, 게으름」의 오의적 특성들 대부분에서 평균대수 진단율 값이 음수로 나타나 이들 속성을 내집단의 특성이 아니라고 여김을 알 수 있다. 또한 편포도도 크게 개선되며 대수 진단율에 의한 고정관념은 평균 진단율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경우와 같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결과는 진단율법이 합의적 실험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알려준다는 McCauley 등(1978)의 주장이 개인 진단율보다는 대수 진단율을 이용할 때 지지됨을 보인다. 아울러 개인 진단율보다는 대수 진단율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한편, Brigham이 제시한 부당한 일반화법 I은 고정관념의 방향성을 알려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의견이 양립해 있는 경우도 고정관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측정 방법과의 상관의 크기에 있어서도 필자가 제시한 부당한 일반화법 II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일반화법에 의한 고정관념 파악은 II의 방법이 선호된다고 하겠다.

어떠한 측정법이 가장 선호되는가 하는 문제는 고정관념을 측정할 때 측정 도구가 갖는 의미를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 고정관념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상 지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지로서 모든 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미분법(Gardner식)으로 파악할 때는 전형적 인물의 특성, 백분율 방법으로 파악할 때는 구성원 중의 비율을, 부당한 일반화 방식으로 볼 때는 지나친 일반화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진단율 방식으로 볼 때는 준거 집단과 비교되어지는 의미로써 고정관념이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어떠한 방식이 연구문제와 관련되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측정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며 합의적인 의미의 고정관념을 알고자 한다면 미분법이나 백분율법이 다른 방법보다는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의 강도가 표적집단에 대한 적개심이나 태도등과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Gardner, 1973; Gardner et al., 1972). 이는 고정관념의 특성들 대부분이 호오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구분해서 논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Devine(1989)은 양자의 차이를 논하면서 편견이 없어도 고정관념은 있을 수 있으며(dissociation model) 편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편견이 감소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 「믿을수 없는」 호남인의 인식이 과거의 조사들과 비교해서 약하게 나타난 것은 그 진상이 어떠한 간에 편견을 포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대학생들에게는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확산에 교육과 사회운동이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진국 (1984).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 연구", 전남대 학생생활연구, 16, 1-27. 전남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김진국 (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 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3(2), 113-147.
 김혜숙 (1989). "지역간 고정관념과 상호간 차이 지각 연구",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 감정, 서울: 성원사. pp.123-169.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

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4(2), 146-168.
 박정순 (1989). "지역감정 문제의 본질: 실상과 허상", 경북대 사회과학연구, 5권, pp.187-205.
 이진숙 (1959). "팔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이진환 (1989). "부산지역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 감정, 서울: 성원사. pp.171-220.
 한규석 (1989). "지역감정- 그 문제점과 대책의 사회심리",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간) 지역감정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pp.9-34.
 Adorno, T.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T., & Sanford, R.N.(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Allport, G.(1954) *The Nature of Prejudice*, Doubleday Anchor.
 Brigham, J.C.(1971). Ethnic stereotypes. *Psychological Bulletin*, 76, 15-38.
 Devine, P.(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Gardner, R.C.(1973). Ethnic stereotypes: The traditional approach, a new look. *Canadian Psychologist*, 14, 133-148.
 Gardner, R.C. Kirby, D.M., Gorospe, F.H, & Villamin, A.C.(1972). Ethnic stereotypes: An alternative assessment technique, the stereotype differentia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7, 259-267.
 Gardner, R.C., Lalonde, R., Mero, A., & Young, M.(1988). Ethnic stereotypes: Implications of measurement strategy. *Social Cognition*, 6(1), 40-60.
 Kalins, M., Coffman, T.L. & Walters, G. (1969). On the fading of social stereotypes: Studies in three generation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1-16.

- Katz, D. & Braly, K. (1933). Racial stereotypes of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Lippmann, W. (1992). *Public opinion*, New York: Hartcourt, Brace.
- MaCauley, C., & Stitt, C.L. (1978). An individual and quantitative measure of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29-940.
- Struch, N., & Schwartz, S. (1989), Intergroup aggression: Its predictors and distinctness from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64-373.

부록 1. 전라인에 대한 고정관념 10가지 요인분석(대
구 서울 응답자)

		요인 1	요인 2
결단력 강한	백분법	.64	.03
	미분법	.52	.22
생활력 강한	백분율	.65	.13
	미분법	.50	.32
단결력 강한	백분율	.57	.20
	미분법	.48	.36
반항적	백분율	.62	-.20
	미분법	.51	-.60
고집센	백분율	.52	-.13
	미분법	.48	.04
믿을 수 없는	백분율	.34	-.68
	미분법	.17	-.62
의리 있는	백분율	.20	.53
	미분법	.06	.66
약삭 빠른	백분율	.54	-.57
	미분법	.38	-.51
배타적인	백분율	.01	.34
	미분법	.52	.29
계으른	백분율	-.07	.37
	미분법	.37	.28
고유가		4.08/20.4%	2.96/14.8%

부록 2. 고정관념의 개인 점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전체)

	1	2	3	4	5	6	7	8	9	10
1	1.000	.041	-.092	-.011	-.132*	-.055	-.033	-.060	-.070	-.075
2		1.000	-.157**	-.217**	.077	.121*	.020	.075	.012	.008
3			1.000	.305**	-.020	-.044	.041	.002	-.012	-.027
4				1.000	-.074	-.153**	-.084	-.186**	-.206**	-.245**
5					1.000	.496**	.310**	.424**	.173**	.181**
6						1.000	.244**	.422**	.097	.141**
7							1.000	.925**	.471**	.468**
8								1.000	.441**	.451**
9									1.000	.957**
10										1.000

- | | |
|------------------|------------------|
| 1)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성향 | 6) 백분율법 개인 점수 |
| 2) 권위주의성향 | 7) 부당한 일반화 개인점수 |
| 3) 전라인에 대한 적대감 | 8) 부당한 일반화 개인점수 |
| 4) 전라인에 대한 접촉도 | 9) 진단율법 개인점수 |
| 5) 미분법 개인 점수 | 10) 대수 진단율법 개인점수 |

부록 3. 광주 응답자들(N=173)의 내집단 고정관념에 대한 진단율과 대수 진단율 비교

	Mean	진 단 율 Standard Deviation	Skewness	Mean	대수 진단율 Standard Deviation	Skewness
배타적임	.98	.46	.56	-.17	.59	-1.19
우유부단함	.85	.43	1.34	-.30	.53	-.52
영리함	1.24	.60	3.56	.14	.36	1.02
믿을수없음	1.00	.74	2.99	-.19	.62	-.12
생활력강함	1.20	.37	3.10	.15	.26	.75
의리있음	1.49	.73	3.26	.31	.40	.53
인정많음	1.41	.77	4.70	.26	.37	1.46
단결력강함	1.44	.92	5.54	.26	.42	.34
반항적임	1.45	.86	4.68	.27	.45	.06
전취적임	1.24	.58	2.39	.13	.41	.17
약삭빠름	1.01	.52	1.46	-.12	.52	-.40
게으름	1.05	.58	3.00	-.08	.50	-.40
고집이섬	1.42	.98	4.97	-.24	.41	1.59

Comparison of Measurement Strategy of Regional Stereotypes

Gyu-Seo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stereotypes were measured using six different techniques of stereotype measurement. The content of the stereotypes was somewhat similar in most methods. Despite this similarity, some yielded contrasting stereotype content. The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varying levels of correlation, indicating the unique property of each method. Because of this uniqueness,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ach measurement strategy. The analysis showed some methods are superior to others. Factor analysis suggested the orthogonality of stereotype magnitude and attitude among individuals.